



나는 1931년 6월 22일 영국 맨체스터 근교 에클스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방직공장에서 일을 했다. 1949년 영국 육군에 입대했고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는 직업군인으로 지냈다.

이 때 외국에서 복무할 기회를 얻었다. 첫 복무지가 한국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1951년 1월11일 엘파이어 윈드러시호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 2월 말 부산에 도착했다. 그 당시 얼마나 추웠는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부산에 도착할 당시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캠프에 도착해서야 제대로 된 겨울 군복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캠프에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궁금해하던 차에 시신수습팀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전사자를 남겨두고 온 전투 현장에 가서 시신을 되찾아오는 임무였다. 시신수습팀은 나를 포함해 미국인 2명, 뉴질랜드인 1명, 한국인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임무였지만 나는 최대한 많은 전우들을 되찾아 오려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2년 4개월 한국 복무 기간 90여 명의 전우의 주검을 수습할 수 있었다.

겨울에는 땅이 꽁꽁 얼어 위치를 표시해 둔 뒤 봄에 다시 돌아와 시신을 수거해야 했다. 여름 역시 수풀에 가려 시신 찾기가 대단히 힘들었다. 임무 중에 북한 군인들과 마주칠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직접 총격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머리 위로 경고 사격을 해 시신 수습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구 근처 논밭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논두렁에서 거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시신의 위치를 알아차린 적이 있었다. 그곳에는 세 명의 영국군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군번줄로 세 사람의 이름과 부대는 파악이 됐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 누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결국 이들 세 명을 무명용사로 유엔기념공원에 함께 안장해야 했고 지금까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기억이다.

1953년 6월 한국 북부를 마치고 일본을 거쳐 영국

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지만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맨체스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축구선수로도 생활했다. 맨체스터시티 축구팀에서 시범 경기를 뛴 적은 있지만 정식선수로는 뛸하지 못해 다른 팀에서 6년간 축구선수로 지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다들 한국전쟁은 끝이났다고 말했지만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열아홉에 한국전에 참전해 존 골딩이라는 참전용사가 있었다. 대구에서 적의 총탄에 맞았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간 근처 총알을 빼내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총알이 박힌 채 진통제도 듣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다. 부인 베로니카는 그런 남편을 60년간 낳았는데 6년, 밤에는 4번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소독을 하고 붕대를 감아야 했다. 3년 전 존이 사망했는데 그가 죽고 닷새 뒤 베로니카도 운명을 달리했다. 아마도 남편을 잃은 상실감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고지순한 이 부부의 사랑이 놀랍기 그지없다.

그런가 하면 1960년대 중반 참전군인 행사에서 우연히 옛 동료들을 만났는데 그는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기억으로 삶이 망가져 정신병원에도 입원했었다. 그는 나에게 한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싶지도 않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나는 몇 년에 걸쳐 그를 찾아가 위로했고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곤 했다. 내 말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던 그가 어느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트렸고 이때부터 전쟁의 악몽에서 조금씩 헤어날 수 있었다. 그는 1971년 사망했다. 통계를 따르면 한국전 참전 영국군인 중 35%가 전쟁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나 역시 지금도 침대가 흥건이 젖을 만큼 맘을 흘리며 전쟁에 관한 악몽을 수시로 꾸는다. 고인이 된 아내가 한국에서 찍

은 사진을 모두 내다 버려, 사진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도 전쟁에 대한 기억은 사진보다 생생하다. 특히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총소리는 70년이 흘러도 여전히 귀에서 맴돈다.

은퇴 후 1988년 한국을 전쟁 이후 처음 방문했다. 그 뒤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전우들을 만나기 위해 매년 한국을 찾고 있다. 전우와의 만남 외에 유엔기념공원에서 근무하는 나의 수장손녀 브랜다(유엔기념공원 관리자 박은정 홍보과장)와 그의 가족을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매년 5월에 한국에 오는 이유도 브랜다의 생일이 5월에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나는 적추암 말기 환자다. 나는 영국 시립암료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담당 주치의가 한국 방문을 극구 만류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고 싶다'고 말하니 그제야 허락했다. 30년 전 처음 유엔기념공원에 왔을 때 언젠가 나도 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유엔기념공원관리처가 고맙게도 국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훗날 내가 묻히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 부산시민과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가진 강연회는 나에게 큰 선물이자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됐다. 한국전 배태랑이라는 사실이 새삼 기쁘고 영광스럽다. 유엔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한국인의 배려와 관심을 언제나 고맙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진짜 영웅은 나 같은 참전 군인이 아니다. 바로 전쟁의 참상을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목숨히 건뎌야 했던 평범한 한국 국민들이라 말하고 싶다. 한국의 눈부신 변용은 한국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선물이다. 끝으로, 전우들과 함께 영원히 한국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제임스 레이몬드 그룬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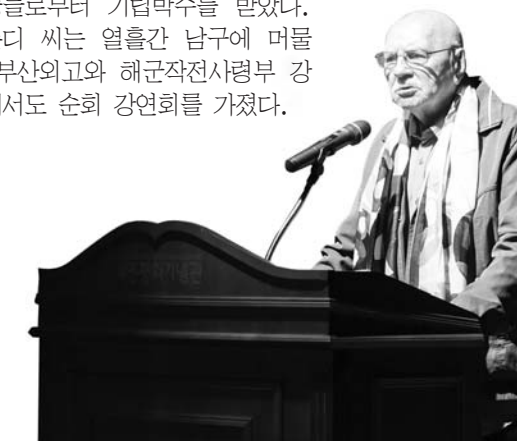
## ■ 제임스 그룬디는 누구

### 말기암 불구 30년째 남구 방문

### 본지 마련한 강연회서 기립박수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James Raymond Grundy)씨는 6·25때 시신수습팀(Recovery Team)으로 복무했다. 그가 수습한 시신들은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8년부터 30년째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이를 기념해 본지가 유엔기념공원과 유엔평화기념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 2일 유엔평화기념관 3층 컨벤션 홀에 시민 강연회를 열었다. 말기 암에도 불구하고 원고 없이 강단에 줄곧 서서 열정적인 강연을 펼쳐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룬디 씨는 열혈한 남구에 머물며 부산의교와 해군작전사령부 강당에서도 순회 강연회를 가졌다.



30년째 남구를 방문하고 있는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 씨가 지난 2일 유엔평화기념관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그룬디 씨는 "한국전 참전 군인 중 35%가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268>



오륙도 스카이워크 개방시간 연장  
(6월 1일~9월 30일)

09 : 00 ~ 18 : 00 ~ 09 : 00 ~ 19 : 00



산성교회 위드봉사단이 도시락 배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랑의 도시락 10년간 7만개 배달

### 산성교회 위드봉사단 매주 소외계층에 도시락 배달

대연동 산성교회에는 '위드 봉사단'이란 특별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로 구성된 모임인데 매주 목요일 저녁 내 품이 불편한 홀로어르신과 저소득층 가구에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월 처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으니 올해로 딱 열 돌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목요일 이른 아침이 되면 예배당은 도시락에 밥과 찬을 담느라 '행복한 냄새'로 가득해집니다. 누구의 자리가 없어도 50여 명의 봉사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분주히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한 모습에서 10년 관록이 어실치 묻어납니다.

도시락은 한번에 120개 정도를 만들어 120세대에 전달합니다. 내용물을 가득 담아 이들을 먹고도 충분한 양입니다. 갖 나운 도시락은 색소난조개를 입은 봉사자 30여 명의 손에 들려 동행로 배분됩니다. 기도와 구호를 외친 뒤 각자 맡은 곳으로 흩어지는 봉사자들의 뒷모습에서 늘 아름다움과 숙연함이 느껴집니다.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움직이지만 대부분 저소득 계층이라 좁은 골목길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시락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도시락 수급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 사회

복지사가 교회에 신청서를 내면 봉사단 임원진들이 그 집을 방문해 정밀 도시락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동안 7만 개 도시락이 남구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잠시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 이 짧은 방문을 도시락보다 더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 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지난해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우암동의 어느 홀로어르신 집을 방문해 "어르신 도시락 왔습니다"라고 외쳤는데 인가척이 나가지 않았습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어보니 어르신은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놀란 한 주검을 진정하고 절처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뒤 교회와 신도들이 연고 없는 어르신의 장례를 치러 준 적이 있습니다. 고독사로 장기간 방치될 뻔한 어르신의 마지막 길을 위드봉사단이 함께 했다고 생각하니 많은 상념이 스쳐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열 살 된 위드봉사단의 도시락 배달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도시락 안에 사랑을 꼭꼭 눌러서 담아 주. 이원서 (산성교회 목사)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유엔기념공원,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1곳' 추천

<1001 Place To See Before You Die>



한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0곳(1,000 Place To See Before You Die)'이라는 여행서적을 읽다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미국의 여행자가 패트리카 솔츠가 쓴 세계 주요 관광지를 다나고 그 가운데 1000곳을 추려 발간한 책인데 여행서적의 바이블 대접을 받고 있다. 2003년 초판 이래 26개국 언어로 번역돼 500만권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전 지구적 권장도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자그마치 1000곳이나 되는 여행지 중 한국의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초한 새벽 수산시장도 올라있는데 우리 급수장산이 한 줄 없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영장 전화를 돌리고 싶었다. 영어가 짧아 흥분을 사야 했다.

그 후 10여 년이 흐른 2016년 9월, 우리 정부가 솔츠를 초청해 경주와 안동 등 한국미 뽐신나는

관광지로 안내했고 적사 대우에 화답하듯 그가 "2018년 개정판에 한국 관광지를 넣어보겠냐"고 밝혔다. '일개' 여행자가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개정판이 기다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애국심 때문이다. 만일, 필자가 솔츠의 연락처를 알고 언어적 장벽이 없다면, 그에게 '죽기 전에 가 봐야할 1001곳'으로 데려가고 싶은 곳은 경주나 안동이 아닌 유엔기념공원이다.

지난해 늦가을, 6·25 때 부산시민을 치료해 준 스웨덴적십자병원(서전병원)의 흔적을 찾으러 남구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필자는 60년 간 잠든 서전병원을 세상 밖으로 꺼낸 공로로 그들과 마지막 인터뷰를 가졌다. 긴 인터뷰 도중 백악의 감독은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The Forgotten War)"이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빼 잊는 질문이었다.

혹여 유엔기념공원 내 전몰용사 추모광비를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 검은 오색 위로 18개국 젊은

군인 4만896명의 이름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다. 성스럽고 위대한 명단이다. 이유도 명분도 모른 채 이역만리 타국에서 초연히 스러진 이름들이다. 이 가운데 단장의 사연을 간직된 2306명(사후 안장자 포함)이 유엔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다. 그뿐인가, 살아 고향으로 돌아 갔지만 상당수는 일평생 전쟁의 기억에 갇혀 살아야 했다. 이들의 피와 눈물, 고통 위에 대한민국은 세워졌다. 유엔기념공원은 망자를 통해 산자가 치유되는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다. 동시에 국경을 초월해 인류가 화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 가치는 '1001곳'에 들리고 남는다.

한국전쟁은 이데올로기 내전이 아닌,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 말하고 싶다. 전쟁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자는 뜻이다. 우리 전래동화에는 유난히 보은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고도 했다. 행여 은혜를 물에 새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 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 “엄마의 100살 생신상... 이제연 여사 사랑합니다”



이제연 여사의 생신상

일도 드물 것입니다. 백은 나이에도 매일 소주 반 병을 반주로 잡초고 자식과 손주들 생일을 기억할 만큼 건강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엄마의 장수 비결을 묻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욕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칠남매 키우면서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남들에게 퍼준 엄마를 보면서 돈을 버리니 건강을 얻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내년, 내년에도 변치 말고 늘 건강하게 저희들 곁에 계시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남순남(영호4동 주민)

### 6월 남구체육회 무료교실 안내

교 실	요일	시 간	정원	장소	운영기간	신청기간
다문화가정 생활체육 패밀리데이	일	09 : 00 ~ 17 : 00	45명	장유롯데 월드파크	07. 1. (일)	6. 11. (월) ~ 선착순 접수
생활체육 아전광장교실	월~금	06 : 00 ~ 06 : 40	00명	구청구민공원		
	월~금	07 : 00 ~ 07 : 40	00명	정자산체육공원 (용호동 이기대)		
	월~금	06 : 00 ~ 07 : 00	00명	부산환경공단남부사무소, 풋살경기장		
※문의 : 남구체육회 ☎644-7330, 612-7330, 622-7330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